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1. 24.(월) 16:00
(지 면) 2025. 11. 25.(화) 조간

민간 최신 AI, 행정망에서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해 'AI 행정시대' 활짝 연다

-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최초로 내부망 AI 공통기반 서비스 도입
- 정부 업무에 AI를 내재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정부 효율성 향상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과학적인 정책기획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AI 행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통기반은 공개된 행정문서·데이터*를 인공지능(AI) 모델과 연계하여, 내부망에서도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챗서비스 2종(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을 제공하게 된다.

*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 또한,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 예) 복잡한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혜택을 찾아주는 '정부24+ 지능 검색' 도입(12월)

- 20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는 인공지능(AI) 모델도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정부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 행안부, 과기정통부, 식약처 대상으로 시행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소통·협업 도구(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활용하는 공통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기관이 보유한 내부 행정 문서·데이터까지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맥락 있는 인공지능(AI)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

구분	범정부 AI 공통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사용처	전체 중앙·지방정부	3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시행 ※ 행안부, 과기정통부, 식약처
활용데이터	법령, 보도자료 등 공통데이터	개인·기관별 문서·데이터(+공통데이터)
UI/UX (사용자경험)	AI 서비스 개발 환경 및 대화창(프롬프트)	문서 편집, 소통, 협업 등 AI 기반의 업무 환경
시범서비스 일정	'25.11월 말 ~ '26.2월 말	'25.11월 말 ~ '26.2월 말 ※ '26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확산에 앞서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인공지능(AI) 서비스 기능 검증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해 2025년 11월 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 한편, 이와 관련해 11월 24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 시연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운영 이후, 2026년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AI 3대 강국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정준우 (044-205-2281)
		담당자	서기관	박범수 (044-205-2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환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재훈 (044-202-6470)
		담당자	사무관	임동진 (044-202-6471)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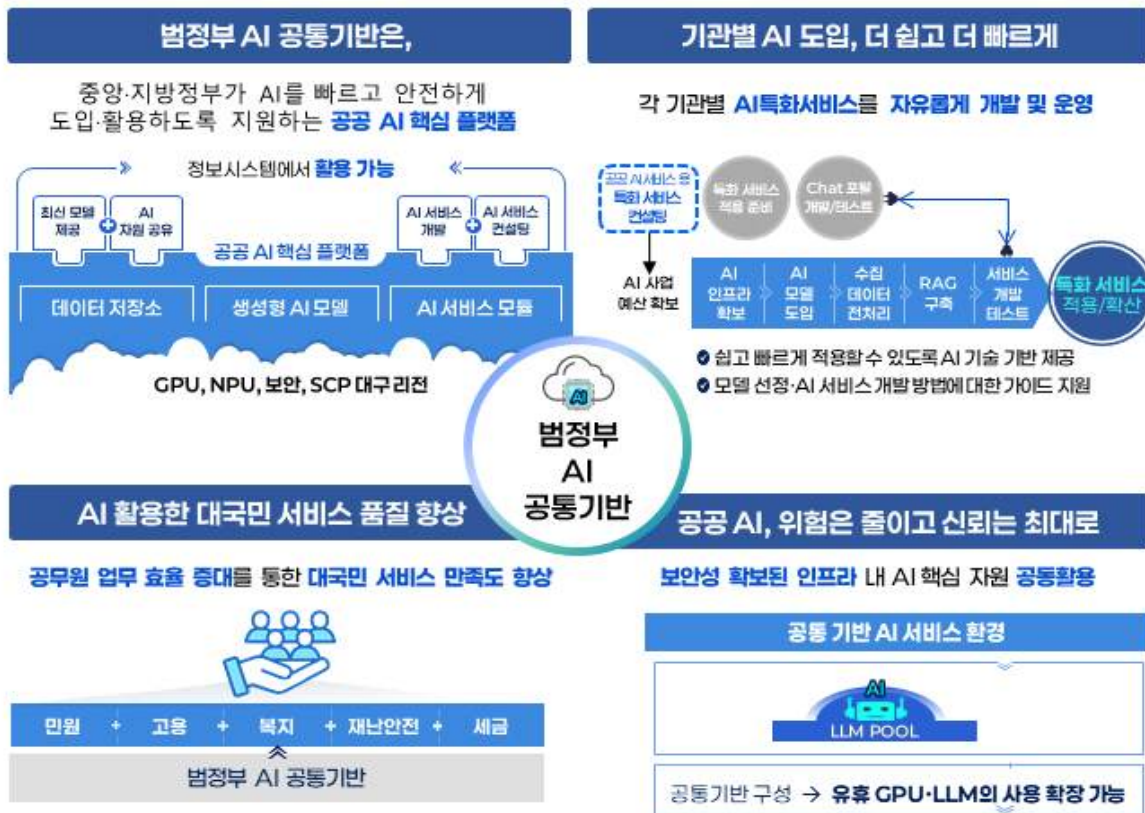
법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법정부 AI 공통기반

비전 및 전략



주요 기능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비전 및 전략



주요 기능

